

佛國寺創建說話 研究

田 寬 秀*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4. 惠恭王의 誕生과 石窟庵 |
| 2. 惠恭王 때의 事情 | 5. 맺음말 |
| 3. 說話의 측면에서 본 金大城의 正體 | |

〈국문요약〉

건축물로서의 佛國寺에 대한 研究는 수백 편에 이르지만, 정작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佛國寺創建說話에 대한 본격적인 研究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論文은 佛國寺創建說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현실을 비판적으로 受容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惠恭王 때 大相의 벼슬에 있으면서 佛國寺를 創建했다는 金大城이라는 人物의 이름인 大城은 일찍이 그의 出身地인 牟梁 지역을 포함하는 大

城郡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둘째, 어린 金大城이 갑자기 죽고 金文亮의 집안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誕生談은 어느 한 居士의 죽음이 竹旨郎의 誕生으로 轉移되는 竹旨郎 誕生談과 돌무덤에서 이레 동안 머물면서 再生을 위한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 마침내 임금이 되는 昔脫解神話의 話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셋째, 장성한 金大城이 吐含山에 올라서 꿈을 잡고 그날 밤 꿈의 귀신이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국문학.

나타나는 꿈을 꾸는 이야기는 곰꿈이 남자를 낳는 정조라는 詩經의 내용과 金大城이 그 남자를 살해한 사실이 중첩된 이야기임을 밝혔다.

넷째, 지금까지 金大城은 景德王 때 中侍를 지낸 金大正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金大城의 再生談과 곰꿈 이야기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金大城은 中侍를 거쳐서 上大等에 있을 때 惠恭

王을 殺害하고 宣德王으로 登極한 金良相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다섯째, 祈子說話의 敘事構造를 가지고 惠恭王의 誕生談과 佛國寺創建說話를 분석한 결과 佛國寺와 石窟庵은 景德王 때 表訓을 매개로 하여 惠恭王을 얻는 과정에서 造成된 것을 밝혔다.

핵심어: 佛國寺, 石窟庵, 金大城, 金良相, 惠恭王, 表訓, 再生談, 곰꿈, 竹旨郎, 昔脫解

1. 들어가기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條(편의상 佛國寺創建說話로 부를 것임)에 나오는 佛國寺創建說話(石窟庵 포함)는 그 길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說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분석해놓은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된 사정은 佛國寺創建說話가 佛國寺와 石窟庵의 뛰어난 文化財의 位相에 가려진 탓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說話의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佛國寺創建說話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중첩된 다층적 說話의 모습을 띠고 있어 佛國寺 創建 당시의 歷史의 내막을 고스란히 喚起시켜 주는 뛰어난 說話이다.

佛國寺創建說話가 여러 이야기가 중첩된 다층적 說話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존에 있는 소재나 이야기가 중요한 話素로 수용되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존에 존재했던 話素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이야기로 金大城이 꿈을 잡은 뒤에 꾸는 꿈 이야기의 주목할 것이다. 꿈 이야기의 멀리는 중국의 詩經에서부터 그 흔적을 보이고 우리의 경우에 金首露王의 아들인 居登王의 誕生談에도 나오는데, 모두 사내아이를 낳는 징조로 꿈이 등장한다. 佛國寺創建說話에 나오는 金大城의 꿈 이야기 역시 이러한 꿈의 이야기와 연관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佛國寺創建說話에는 태어나서 얼마 뒤에 죽고 다른 집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金大城의 再生談이다. 우리나라의 古代說話에서 대표적인 再生談은 三國遺事에 나오는 昔脫解神話이고, 竹旨郎誕生談 역시 죽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탄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金大城의 誕生談에 담긴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本稿는 지금까지 金大正으로 比定되어 있는 金大城의 正體¹⁾를 새롭게 해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佛國寺創建說話와 惠恭王 誕生의 상관성이다. 일찍이 이에 대해서는 남천우나 신영훈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이들 논문의 主旨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²⁾ 本稿에서는 表訓이라는 승려가 佛國寺創建說話(이 가운데 前生の 부모를 위해서 金大城이 세웠다는 石窟庵創建 이야기)와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惠恭王의 誕生談에 모두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祈子說話의 관점에서 佛國寺創建說話를 惠恭王의 탄생과정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3, 168~169쪽.

2) 남천우(『石佛寺』, 一潮閣, 1991), 신영훈(『석굴암』, 조선일보사, 2003) 등이 대표적이다.

2. 惠恭王 때의 事情

三國遺事에 따르면 佛國寺는 天寶 10년(751, 景德王 10)에 金大城이 짓기 시작해서 그가 죽은 大歷 9년(774, 惠恭王 10) 12월 2일(양력으로 는 다음해 1월 12일임) 이후로는 나라에서 마저 완성시켰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惠恭王 7년(771)에는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 奉德寺神鐘이 완성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 두 가지 뛰어난 文化遺産만 보아도 景德王과 惠恭王 때는 그야말로 統一新羅의 文化的 爛熟期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로 이 무렵의 政治的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기실 三國統一의 大業이 太宗 武烈王系와 金庾信系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科擧制 같은 객관적인 人才登用 制度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骨品에 따른 身分制에 바탕을 둔 新羅 社會의 속성상 이 두 집단은 三國統一 이후 (惠恭王 이후로 왕이 되는 宣德王이 奈勿王系라는 점에서 적어도 惠恭王 때까지) 배타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모든 政治權力을 독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武烈王系와 金庾信系가 文武王(在位 661~681) 때부터 惠恭王(在位 765~780) 때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떻게 分化되어 왔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惠恭王 때는 政治的으로는 武烈王系가 이끈 中代新羅를 마감하고, 金良相(宣德王)과 金敬信(元聖王)이라는 奈勿王系의 후손들이 이끈 後代新羅의 起點으로 논의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激變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금노릇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이 바로 惠恭王이다. 더구나 惠恭王은 나이 겨우 8살 때에 임금이 되었고 어미인 滿月夫人의 攝政 아래 있었기 때문에 惠恭王의 權力 기반은 卽位 初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竹葉軍 이야기는 이러한 惠恭王 때의 분위기를 매우 상

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4代 儒禮王 때에 伊西國 사람들이 金城으로 쳐들어왔다. 우리 쪽에서 크게 軍士를 일으켜 막았으나 오래 버티지 못했다. 홀연 신기한 兵士들이 달려와 도와주었는데, 모두들 귀에 대일사귀를 꽂은 채 우리 軍士와 힘을 합쳐서 敵軍을 격파하였다. 敵軍이 물러난 뒤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는데, 다만 味鄒王의 무덤 앞에 대일사귀만 가득 쌓여 있었다. 이에 先王의 陰德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味鄒王의 무덤을) 竹現陵이라고 부른다.……

37代 惠恭王 때인 大歷 14년 己未 4월 홀연히 회오리바람이 金庾信 공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가운데에서 말을 탄 將軍의 모습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갑옷과 兵仗器를 갖춘 40여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竹現陵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무덤 안에서는 마치 흑흑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 하는 말이 “小臣은 평생토록 時政을 돕고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온 나라를 하나로 합쳐낸 功績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어 魂魄이 되었지만 나라를 수호하고 재앙과 근심을 막아내는 마음을 잠시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庚戌年에 小臣의 자손들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임금과 臣下들이 저의 功烈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小臣은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자 하니, 바라건대 允許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이오. 공께서는 예전처럼 힘써 주기 바라오.”라고 했다. (金庾信이) 세 번 청했으나 (味鄒王이) 세 번 다 允許하지 않았다. 그러자 회오리바람이 곧 돌아갔다. (惠恭)王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工臣 金敬信을 (金庾信) 공의 무덤에 보내어 사죄하고 그를 위해서 功德寶田 30結을 鷲仙寺에 마련하여 冥福을 비는 데 쓰도록 했다. 이 절은 바로 金公이 平壤을 토벌한 뒤에 冥福을 빌기 위해 세운 까닭이다. 味鄒王의 신령이 아니었다면 金公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니, (味鄒)王의 護國의 마음은 크지 않음이 없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그 임금의 功德을 생각하여 三山과 똑같이 제사 지내고 五陵의 위치보다 낮게 내려놓지 않고 大廟라고 불렀다.³⁾

味鄒王(在位 262~284)은 新羅에서 金氏로 최초로 임금이 된 사람이다. 味鄒王에 이어서 임금이 된 儒禮王(在位 284~298) 때 있었던 이 竹葉軍 이야기는 伊西國(현재 淸道 지역)의 침입을 무찌른 가장 큰 功勞가 味鄒王의 후예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그 뒤 이 사건은 奈勿王系로 王權을 되돌리면서 新羅 1000年 金氏王朝의 門을 활짝 열어젖히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味鄒王의 竹現陵이 朴赫居世의 五陵과 同級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歷史的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惠恭王 15년인 大歷 14년(779)에 이르러 金庾信의 魂靈이 갑자기 味鄒王陵을 찾아가서 지난 庚戌年(770) 자기 후손들이 죽임을 당한 일을 하소연하자 味鄒王은 金庾信의 魂靈을 다독거린 뒤에 돌려보낸다. 실제로 金庾信의 무덤과 竹現陵은 兄山江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거리상으로 가깝게 때문에 金庾信의 魂靈이 竹現陵을 찾아간 것은 아닐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리어 金庾

3) 『三國遺事』, 『味鄒王竹葉軍』, “第十四儒禮王代 伊西國人來攻金城 我大舉防禦 久不能抗 忽有異兵來助 皆珥竹葉 與我軍并力擊賊破之 軍退後不知所歸 但見竹葉積於未鄒陵前 乃知先王陰蔭有功 因呼竹現陵……越三十七世惠恭王代 大歷十四年己未四月 忽有旋風 從庾信公塚起 中有一人乘駿馬如將軍儀狀 亦有衣甲器仗者四十許人 隨從而來 入於竹現陵 俄而陵中似有振動哭泣聲 或如告訴之音 其言曰 臣平生有輔時救難匡合之功 今爲魂魄 鎮護邦國 攘災救患之心 暫無渝改 往者庚戌年 臣之子孫無罪被誅 君臣不念我之功烈 臣欲遠移他所 不復勞動 願王允之 王答曰 惟我與公不護此邦 其如民庶何 公復努力如前 三請三不許 旋風乃還 王聞之懼 乃遣工臣金敬信 就金公陵謝過焉 爲公立功德寶田三十結于鷲仙寺 以資冥福 寺乃金公討平壤後 植福所置故也 非未鄒之靈 無以遏金公之怒 王之護國 不爲不大矣 是以 邦人懷德 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大廟云”

信의 魂靈이 찾아가야 하는 무덤은 역시 그 가까이에 위치한 武烈王의 무덤이어야 정상일 것 같다. 왜냐하면 伽倻國이 망한 때는 眞興王 23년(560)이므로 眞興王 이전에 임금을 한 味鄒王과 伽倻國의 후손인 金庾信은 아무런 緣故를 찾을 수 없고, 惠恭王은 武烈王系の 直系 후손이므로 金庾信의 魂靈이 자기 후손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하소연한다면 武烈王陵이 가장 어울릴 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竹葉軍 이야기의 본질은 惠恭王이 뒤에 奈勿王系로 金良相, 즉 宣德王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임금이 되는 金敬信(元聖王)으로 하여금 金庾信의 무덤에 가게 하여 사죄하도록 했다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듯하다. 본문에서도 味鄒王이 아니었다면 죽은 金庾信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듯이 金庾信의 후손들이 당한 억울함은 奈勿王系の 도움으로 해소되었고, (글의 문면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金庾信의 후손들을 죽음으로 내몬 武烈王系인 惠恭王(나이가 어려서 大妃가 攝政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그런 일을 직접 나서서 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은 金庾信의 후손들에게 용서를 빈 형국인 것이다. 결국 惠恭王 때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쪽은 金庾信의 후손이고 그러한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 주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은 奈勿王系の 후손임을 알 수 있다.

3. 說話的 측면에서 본 金大城의 正體

金大城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條에서는 그가 大相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했지만(釋迦塔에서 나온 墨紙에서는 角干이었다고 했음), 三國史記에는 그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李基白은 金大城을 三國史記 景德王條

에 나오듯이 景德王 4년 5월에 金惟正에 이어서 中侍가 된 金大正에 比定했다. 그 뒤로 이것은 定說로 굳어졌고⁴⁾, 모든 著書와 論文들도 이를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즉 그는 三國遺事에서 景德王의 后妃인 滿月夫人의 아버, 金'依'忠을 三國史記에서는 金'義'忠으로 쓰거나 三國遺事에서는 宣德王이 된 金'亮'相을 金'良'相으로 쓰는 것처럼 원래의 어느 漢字를 다른 漢字로 바꾸어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흔한 일로 보면서 金大城을 곧바로 金大正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비슷한 用例는 2004년 경상남도 사천에서 발견된 新羅時代 빗돌에 나오는 '天雲'을 惠恭王의 이름인 '乾運'—天과 乾은 모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고, 雲과 運은 발음이 같음—으로 봄으로써 天雲이 곧 惠恭王임을 밝혀낸 일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金大城이 金大正이라는 주장은 再考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城과 正을 바꾸어 쓰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수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수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전혀 없이 당시에 漢字를 바꿔 쓰는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만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면서 곧바로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단정하고, 나아가 金文亮과 金大正이 中侍를 지냈던 시기의 차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金文亮과 金大正을 父子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은 지나친 속단이다. 大相을 지냈다는 金大城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金大城에 대하여 가장 많은 情報를 싣고 있는 三國遺事의 '大城孝二世父母'條에서 그 사실성과 허구성을 면밀히 구별해내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일이 제대로 된 순서이다(李基白은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했다).

牟梁里에 사는 가난한 여자 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다.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한 것이 城 같아서 이름을 大城이라고 했다. 집안이

4) 李基白, 앞의 책, 1973, 168~169쪽 요약 인용.

가난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자 (慶祖는 大城을) 富者인 福安의 집에서 머슴을 살게 했다. 그 집에서 밭 두어 이랑을 주어 衣食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開土 漸開가 興輪寺에서 六輪會를 열고자 하여 福安의 집에 와서 보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벼 50필을 내놓았다. 漸開가 축원하기를 “시주님께서 보시를 좋아하시니 天神께서 늘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를 베풀면 만 갑절을 얻을 것이고 편안하고 즐겁게 오래도록 사실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大城이 어머니에게 뛰어가 말했다. “제가 문밖에서 스님이 축원하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베풀면 만 갑절을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前生에 착한 일 한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합니다. 지금 또 베풀지 않으면 來世에는 더욱 곤궁해질 것입니다. 우리 집의 밭이랑을 法會에 바쳐서 뒷날 보답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어머니는 좋다고 하고 곧 漸開에게 밭을 보시켰다.⁵⁾

牟梁里는 현재 경주시 건천읍의 작은 마을이지만, 三國遺事의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에 따르면 원래 朴赫居世 때부터 新羅六村 가운데 세 번째로 茂山大樹村이라고 불렀고 俱禮馬라는 우두머리가 처음에 伊山(一名 皆比山)에서 내려와서 이곳을 漸梁部(또는 牟梁部)라 하고 孫氏의 始祖가 되었다고 했다. 반면에 三國遺事의 孫順埋兒條에서는 孫順 역시 牟梁里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개 孫順은 密陽 孫氏의 始祖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密陽은 牟梁에서 변형된 말이고 牟梁 지역은 현재 密陽 지역까지 통틀어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 淸道郡條에 보면, 淸道는 본래 伊西小

5)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慶祖有兒 頭大頂平如城 因名大城 家窶不能生育 因役備於貨殖福安家 其家依田數畝 以備衣食之資 時有開土漸開 欲設六輪會於興輪寺 勸化至福安家 施布五十疋 開咒願曰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樂壽命長 大城聞之 跳跟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偈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備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母曰 善 乃施田於開”

國—앞서 竹葉軍 이야기에서는 伊西國이라고 했음—으로 儒理王(在位 24~57)이 정벌해서 仇刀城 境內의 率伊山, 慶山, 烏刀山 등 세 곳을 합쳐서 大城郡으로 불렀고, 景德王 때에는 仇刀를 烏岳縣으로, 慶山을 荊山縣으로, 率伊山을 蘇山縣으로 고쳐서 모두 密城郡, 즉 密陽의 領縣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牟梁, 密陽(密城), 大城은 동일한 크기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서로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金大城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沙梁部 출신의 여자를 沙梁夫人이라고 부르듯이 大城 출신의 金氏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牟梁과 大城은 같은 곳을 두 번 말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大相이라는 벼슬을 한 사람들의 이름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大相이라는 벼슬이 말 그대로 臣下로서 최고의 벼슬일 것이고 상식적으로 어느 벼슬아치의 호칭은 가장 높은 벼슬을 했을 때의 벼슬로 불린다는 점에서 金大城이 歷任했다는 大相은 中侍를 가리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할 것임). 그리고 모든 分野에서 漢字化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三國統一 이후에 中侍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관념적인 漢字로 전아하게 만들어진 이름들이지6), ‘큰 재’ 정도의 뜻으로 訓讀해서 읽을 수 있는

6) 대체로 이들 이름은 몇 가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文忠, 文王, 文良(亮), 文林 등이 있고, 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禮元, 元師, 仙元, 元宣, 元順, 周元, 元文, 元興 등이 있고, 貞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信貞, 孝貞, 憲貞, 均貞 등이 있고, 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思恭, 義恭, 悌恭, 忠恭, 永恭, 敏恭 등이 있고, 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文忠, 允忠, 義忠, 信忠, 忠恭, 宗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宗基, 宣宗, 孝宗, 亮宗 등이 있고, 正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大正, 惟正, 正門 등이 있고, 義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義忠, 義恭, 義踪 등이 있다. 한마디로 儒敎의 理念에 부합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大城처럼 新羅式의 촌스러운(?) 이름은 거의 없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할 때 大城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땅이름을 가지고 실제 인물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좀더 커진다.⁷⁾

나아가 大城이 이름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金大城의 집안이 가난했다는 사실과 牟梁里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연관시켜 살펴볼 수도 있다.

32代 孝昭王 때 竹曼郎의 무리에 得鳥 級干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風流黃券에 이름이 올라 있어 날마다 벼슬길로 나아가더니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았다. 竹曼郎이 得鳥의 어미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그 어미가 “幢典 牟梁 益善 阿干이 우리 아들을 富山城 창지기를 시켜서 급히 달려가느라 郎에게 하직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라고 했다. 竹曼郎이 깨우쳐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사사로운 일로 그곳에 갔다면 찾아갈 것이 없겠지만, 公事로 떠났다고 하니 마땅히 가서 데리고 돌아와서 먹이리라.”라고 했다.

곧 舌餅 한盒과 술 한 항아리를 갖고 左人을 데리고 가는데, 竹曼郎의 무리 서른일곱 사람 역시 儀仗을 갖추고 뒤따라갔다. 富山城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得鳥는 어디에 갔는가?”라고 묻자, 문지기가 “지금 益善의 밭에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赴役하러 간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다. 竹曼郎이 밭으로 가서 가지고 온 술과 떡을 得鳥에게 먹이고 益善에게 得鳥의 말미를 청하여 함께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益善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마침 使吏 侃珍이 推火郡의 租稅를 거둘 때 租稅 서른 섬을 조절할 수 있어서 城中으로 실어 보

7) 아마도 中侍를 지낸 사람으로 訓讀으로 읽을 수 있는 이름으로는 조금 뒤에 언급되었지만 惠恭王 때보다 훨씬 이전인 三國統一 무렵에 장군이었던 竹旨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惠恭王 전후만 따졌을 경우에는 訓讀할 수 있는 漢字式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는 일이 있었다. 竹曼郎이 선비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칭찬하고 앞뒤가 꼭 막힌 益善을 비루하게 여겼다. 이에 곧 竹曼郎이 그 서른 섬을 益善에게 주면서 보내주기를 청했으나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珍節舍知의 말과 안장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제서야 허락했다.

朝廷의 花主가 이 말을 듣고 使者를 보내어 益善을 잡아다가 그 더러운 때를 씻어내려 했으나 益善이 도망쳐서 숨어버려서 그의 만 아들을 대신 잡아왔다. 때마침 2월이어서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城 안 언뜻 가운데 목욕시키니 얼어 죽었다. 대왕이 이 말을 듣고 詔勅을 내려 牟梁里 사람 가운데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모두 쫓아 버리고 다시금 公署에 나들이를 금하고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며, 만일 僧侶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鐘鼓寺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勅書를 내려 使吏 侃珍의 지손을 杼定戶孫을 삼아서 특별히 대우하였다. 이때 圓測法師은 海東의 高德임에도 불구하고 牟梁里 출신이어서 僧職을 除授받지 못했다.⁸⁾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竹曼郎은 바로 得鳥谷이 지은 鄉歌 慕竹旨郎歌에 나오는 竹旨郎을 말한다. 그는 副帥가 되어 金庾信과 함께 三韓을 統一하는 데 커다란 공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統一新羅 이후로 王權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 비중이 上大等보다 더 중요시되기도 했고 伊滄(2등급) 정도에서 주로 임명되던 中侍 자리에 波珍滄(4등급)에서 과거

8) 『三國遺事』, 『孝昭王代竹旨郎條』,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鳥(一云谷)級干 隸名於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 問爾子何在 母曰 幢典牟梁益宣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直 馳去行急 未暇告辭於郎 郎曰 汝子若私事適彼 則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 乃以舌餅一合·酒一缸 卒左人(鄉云皆叱知 言奴僕也)而行 郎徒百三十七人 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閹人 得鳥失矣在 人曰 今在益宣田 隨例赴役 郎歸田 以所將酒餅饗之 請暇於益宣 將欲偕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侃珍管收推火郡 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郎之重土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助請 猶不許 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宣 將洗浴其垢醜 宣逃隱 掠其長子而去 時 仲冬極寒之日 浴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 並合黜遣 更不接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鐘鼓寺中 勅史上侃珍子孫爲杼定戶孫 標異之 時 圓測法師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故不授僧職”

적으로 임명되어 眞德女王, 武烈王, 文武王, 神文王 등 四代에 걸쳐서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이었다.⁹⁾ 한마디로 竹旨郎은 金庾信의 偉業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에 버금가는 重臣이었다.

바로 위의 이야기는 이러한 竹旨郎을 상대로 6등급에 불과한 阿干(阿飡)의 益善이 감히 賂物을 받아 챙기는 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益善이 賂物을 받은 일은 그 뒤 예상보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 위의 이야기에 언급되다시피 朝廷에서는 못된 짓을 한 益善을 잡아들이게 했고, 益善이 도망가자 그의 아들을 대신 잡아들이어서 얼어 죽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밑줄 친 부분으로 알 수 있듯이 益善이 牟梁里 출신이라고 하여 牟梁里 출신으로 朝廷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은 벼슬자리에서 내치고, 그 뒤로 牟梁里 출신은 아예 公署에 오르지도 못하도록 했으며, 圓測(613~696)의 경우처럼 權力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僧職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불이익을 주었다고 했다.

대체로 孝昭王 때에서 惠恭王 때까지는 임금이 4번 바뀌었다—孝昭王(在位 692~702), 聖德王(在位 702~737), 孝成王(在位 737~742), 景德王(在位 742~765), 惠恭王(在位 765~780)—고는 하지만 100년이 채 흐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牟梁里 사람들은 惠恭王 때까지도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賂物을 받아 챙긴 益善의 행동으로 牟梁里 출신들이 나라로부터 지나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牟梁里 출신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歷史에 기록되지 않은 反亂에 따른 과심죄까지 겹쳐진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 뒤로 牟梁里 출신으로 三國遺事에 기록을 남긴 사람은 老母를 잘 모신 孝行으로 임금으로부터 황금술을 下賜받은 孫順이다. 孫順의 이야기는 興德王(在位 826~836) 때 이야기라는 점에서 牟梁里 사람들은 길게 보아 이때쯤에 이르러 자신들

9) 『三國遺事』, 『孝昭王竹旨郎條』.

에게 주어져 있던 사회적 불이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결국 孝昭王 이래 牟梁里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던 이러한 사회적 제약이 한 동안 존재했다고 보아야 牟梁里 출신의 어린 金大城이 불가피하게 金文亮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했던 내막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金大城이 國宰 金文亮의 집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것은 金大城의 가난한 집안 사정과 牟梁里 사람으로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牟梁里 慶祖라는 여자의 아들이 金大城이라는 이름을 가진 假想의 인물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뒤 大城이 죽었다. 이날 밤 國宰 金文亮의 집에는 하늘에서 “牟梁里的 大城이라는 아이가 오늘 너의 집에 假託해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家人(집안의 婦女子)이 떨며 놀라서 牟梁里를 찾아가게 하니 과연 大城이 죽었다. 그가 죽은 날은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날과 같았다. (家人에게) 胎氣가 있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왼손을 오므린 채 퍼지 않다가 이레 만에 비로소 손을 폈다. 거기에는 大城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金簡子가 있어서 이것으로 이름을 삼았다. 그 (옛날) 어미를 큰 집으로 모셔 와서 함께 봉양했다.¹⁰⁾

위의 이야기를 보면, 來世에 좀더 편하게 살고자 자신의 집에서 일구던 밭이랑을 보시했던 金大城이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겉으로 보면 어린 金大城의 갑작스런 죽음과 탄생은 어색한 敘事構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와 흡사한 話素를 가진 이야기를 통해서 金大城의 죽음과 再生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다. 대개 한 사람

10)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 “未幾 城物故 是日夜 國宰金文亮家 有天唱云 牟梁里 大城兒 今託汝家 家人震驚 使檢牟梁里 城果亡 其日與唱同時 有娠生兒 左手握不發 七日乃開 有金簡子彫大城二字 又以名之 迎其母於第中兼養之”

의 죽음이 또 한 사람의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益善의 賂物 이야기에 이어지는 竹旨郎의 탄생 이야기이다.

처음에 述宗公이 朔州 都督使가 되어 자신의 任地로 갈 때 三韓에 兵亂이 있어서 騎兵 3,000명으로 그를 호송하게 하였다. 행렬이 竹旨嶺에 이르자 한 居士가 길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述宗公이 이를 보고 칭찬하자 居士 또한 述宗公의 위세가 매우 놀라운 것을 보고 존대하게 되어 서로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述宗公이 고을의 任所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꿈에 居士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述宗公의 아내가 같은 꿈을 꾸었으므로 더욱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서 다음날 사람을 보내어 그 居士의 안부를 묻게 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居士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使者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아뢰니, 그 날이 바로 꿈을 꾸었던 날과 같은지라 述宗公이 말하기를 “아마 居士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 같소.”라고 했다. 다시 軍士를 보내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葬事를 지내게 하고 돌로 彌勒佛 하나를 새겨서 무덤 앞에 세우게 했다. 꿈을 꾸는 날부터 述宗公의 아내에게 胎氣가 있었다. 아기를 낳자 이러한 연유로 竹旨라고 불렀다. 竹旨郎은 커서 벼슬하면서 庾信公과 함께 副帥가 되어 三韓을 統一하였다.¹¹⁾

竹旨郎의 誕生談에 비교할 때 牟梁里 출신의 金大城은 가난한 어린 시절에 죽어서 새롭게 國宰인 金文亮의 아들로 그 이름 그대로 태어나는 점이 다르다. 대개 金大城의 再生談은 단순히 佛敎的인 因果應報의

11) 『三國遺事』, 『孝昭王代竹旨郎』, “初 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同夢 驚怪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其死 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於嶺上北峯 造石彌勒一軀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一三韓”

說話로 보지만,¹²⁾ 이보다는 牟梁里 출신의 金大城이 金文亮에게 養子간 개인적인 이야기와 竹旨郎의 誕生談類가 합쳐진 이야기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은 牟梁里 출신의 金大城이 새로 金文亮의 집에서 태어날 때 金簡子를 손에 쥐고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金簡子란 말 그대로 金으로 만든 簡冊을 말하지만, 이 金簡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대개 道教의 仙簡이나 帝王의 詔書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그렇다면 金大城이 金簡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다시 태어날 金大城의 존재를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金簡子에 大城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는 것은 牟梁里 출신의 金大城이 金文亮의 집에서 새로 태어나면서 어떤 神聖한 존재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大城이라는 이름이 써 있던 金簡子는 再生 혹은 탄생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金大城이 가지고 있던 金簡子는 昔脫解가 들어가 있던 황금 껍짝이나 金闕智가 누워 있던 황금 껍짝의 한 변이형태로 볼 수 있다(그 당시는 이미 온전한 神話時代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金大城의 再生談과 昔脫解神話에는 새로 태어나는 삶을 위하여 모두 ‘이레’라는 동일한 날짜가 나온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聖德王에서 惠恭王에 이르는 시대는 統一新羅의 極盛期요, 金春秋 후예들의 全盛期요, 또 한편으로는 新羅 中代가 막바지에 이르고 新羅 下代가 시작되는 때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까지 고려할 때 金大城이 竹旨郎의 誕生談 및 昔脫解의 再生談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것은 자신이 金春秋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는 傍證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金春秋의 직계 후손들은 王統을 잇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신화적 바탕을 또다시 끌어들이는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韓國文化財管理局,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韓國文化財管理局, 1967, 4쪽.

(大城은) 장성하여 사냥을 좋아했다. 어느 날 吐舍山에 올랐다가 곰 한 마리를 잡고서 산 아래 마을에 묵었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따져 말하기를 “너는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잡아먹으리라!” 했다. 大城이 두려워하며 용서를 청하자, 귀신이 말하기를 “날 위해 佛寺를 세워줄 수 있겠느냐?” 했다. 大城이 말하기를 “그러겠다!”고 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땀이 이불에 흘러내렸다. 그 뒤로부터 大城은 사냥을 그만두고 곰을 잡은 곳에 곰을 위하여 長壽寺를 세웠다.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가 생기고 悲願이 더욱 두터워져서, 現生の 부모를 위해서 佛國寺를 짓고 前世의 부모를 위해서 石佛寺를 지어서 神琳과 表訓 두 聖師를 청하여 머물도록 하고 성대히 像을 베풀어 자신을 키워준 부모의 수고로움에 보답했다.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날에도 드문 일이었다.……옛 鄉傳에 적혀 있는 것은 이와 같다. 寺中記에 이르기를 “景德王 때 大相 金大城이 天寶 10년 辛卯에 佛國寺를 짓기 시작했다. 惠恭王 때를 거쳐서 大歷 9년 甲寅 12월 2일에 大城이 죽자 나라에서 마저 완성했다. 처음에 瑜珈敎의 大德인 降魔를 청해다가 이 절에 머물게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것은 古傳과 같지 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¹³⁾

佛敎의 입장에서 보면 꿈을 죽인 뒤에 생명에 대한 慈悲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항용 할 수 있는 말인 듯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위의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꿈꿈’ 속에 숨어 있는 듯하다. 『詩經』 권11 「小雅 斯干」에서는 꿈꿈에

13)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舍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 詁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懼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 諾 既覺 汗流被褥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之勞 以一身孝二世父母 古亦罕聞 ……古鄉傳所載如上 而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以天寶十年 辛卯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初請瑜珈大德降魔住此寺 繼之至于今 與古傳不同 未詳孰是”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吉夢은 무엇인가
 작은 꿈 꿈, 큰 꿈 꿈이라네.
 살모사 꿈, 뱀 꿈이라네.
 짐승이들은 짐을 치기를
 작은 꿈과 큰 꿈은 남자 낳을 징조이고
 살모사와 뱀은 여자 낳을 징조라네.¹⁴⁾

꿈꿈이 남자를 낳을 징조라는 것은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에서도 金首露王이 아들 居登公을 얻을 때 “몇 해 동안 熊羆의 징조가 있더니 太子 居登公을 낳았다.”¹⁵⁾라고 했듯이 일찍이 그 용례가 우리의 경우에도 확인된다(꿈꿈 이야기는 『詩經』의 流入을 통해서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꿈꿈 이야기의 보편적인 신화적 바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金大城의 꿈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죽은 꿈의 귀신이였다. 따라서 金大城의 꿈꿈 이야기는 남자를 낳을 징조인 꿈꿈 이야기와 꿈으로 상징된 한 남자를 金大城이 죽였다는 사실이 중첩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추정할 수 있다. 金大城이 잠에서 깨었을 때 덮고 잔 이부자리에 땀이 흘러내렸다는 것 역시 金大城이 단순히 꿈을 죽인 것이 아니라 꿈으로 상징되는 어떤 남자를 불가피하게 죽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大相이라는 최고의 벼슬을 한 金大城이 누구를 죽이고 몹시 두려워했다면, 그런 존재는 임금밖에 달리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金大城이 지냈다는 大相이라는 벼슬 이름을 통해 金大城의 正體를 탐색해 보자. 대개 大相이란 君主國家에서 임금 다음으로 중요

14) 吉夢維何 維熊維羆 維虺維蛇 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

15) 『三國遺事』, 『駕洛國記』, “頻年有得熊羆之兆 誕生太子居登公”

한 벼슬아치를 가리킨다고 할 때 新羅에서 가장 중요한 두 職責으로 上大等과 中侍를 들 수 있다. 그러나 上大等은 대체로 貴族의 대표라는 성격이 강했고, 統一新羅 이후에는 骨品에 따른 貴族 중심의 政治보다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專制王權國家의 특징이 강화되면서 王命을 전달하고 아래의 官府를 통제하는 執事部 中侍가 중요시된다는 歷史 쪽의 일관된 연구 결과에 따라 볼 때, 大相이란 당연히 中侍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⁶⁾

이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大相 벼슬을 지냈고 景德王 때인 天寶 10년 신묘(751)에서부터 佛國寺를 짓다가 惠恭王 10년인 大歷 9년 갑인(774)에 죽었다는 金大城의 正體를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 中侍 벼슬을 한 인물들로 논의를 좀더 좁혀가 보자. 아래의 내용은 771년(惠恭王 7) 12월 14일에 완성되었다는 奉德寺神鐘 銘文의 일부이다.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 并檢校眞
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檢校使肅政臺令兼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副使執事部侍郎 阿浪 金○信

여기에 보면 그 당시 權力의 중심부에 있던 인물들인 金邕, 金良相等의 이름과 벼슬이 기록되어 있다.¹⁷⁾ 또한 金邕, 金良相 및 金敬信의

16) 竹旨郎은 三國遺事에서는 冢宰를 지냈다고 했고 金大城의 또 다른 아버지인 金文亮을 國宰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모두 中侍를 지낸 사람들이다. 대개 宰와 相을 합쳐서 통상 宰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大相은 통상 中侍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中侍 아래 벼슬을 大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竹旨郎의 행적이나 佛國寺와 石窟庵을 창건한 金大城의 행적 등으로 볼 때 최소한 두 사람의 경우만 보면 冢宰나 大相은 당연히 中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 대개 세 사람 가운데 金○信의 ○는 體로 읽는다. 그런데 金體信은 宣德王 4년(783)에 阿浪(6등)이었고, 金敬信은 惠恭王 16년(780)에 이미 伊浪(2등)이었기 때문에 鳳德寺

官職 기록을 三國史記에서 살펴보면, 金邕와 金良相은 中侍를 지냈고, 金敬信은 上大等으로 있을 때 伊滄(2등급) 벼슬에 있었고 金敬信은 뒤에 宣德王에 오를 때는 곧바로 上大等に 임명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벼슬이 높았던 金邕을 뺀 나머지 두 사람은 나중에 모두 임금자리에 올랐다(대개 伊滄에서 中侍로 가는 경우가 많다¹⁸)고 하지만, 金敬信은 史書에서 中侍를 지낸 經歷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두자).

우선 세 사람의 生沒을 살펴보자(金大城은 大歷 9년 12월 2일에 죽었다). 宣德王 金良相은 임금자리에 5년 있다가 785년에 죽었다. 金敬信은 宣德王 金良相에 이어서 元聖王으로 즉위했고 798년에 죽었다.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金邕의 生沒年代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奉德寺神鐘 銘文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 771년까지는 명백히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惠恭王을 죽인 사람은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宣德王인 金良相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실제로 伊滄에서 中侍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大相이 中侍를 가리킨다는 기준만 가지고 볼 때 金大城이 金良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金良相은 임금자리에서 죽었으므로 그의 沒年은 정확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金良相의 沒年과 金大城의 沒年은 전혀 맞지 않는다. 金良相이 金大城일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元聖王 金敬信 역시 임금자리에서 죽었으므로 그의 沒年은 정확할 것이기 때문에 金敬信이 金大城에 比定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더구나 金敬信은 惠恭王보다는 宣德王이 죽은 뒤에 임금자리를 놓고 金周元과 다투었다는 점에서 金敬信이 金大城일 가능성은 金良相보다 더 줄

神鐘(771년 완성)에 나오는 阿滄인 金○信은 宣德王 金良相에 이어서 元聖王이 된 金敬信일 가능성도 있다.

18) 李基白, 앞의 책, 1973, 154~158쪽.

어든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金邕은 771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점에서 金邕이 金大城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奉德寺神鐘의 銘文에 나와 있듯이 金邕은 金良相보다 윗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惠恭王이 죽은 뒤에 임금이 되지 않았고, 그 대신 金良相과 金敬信이 차례로 임금이 되었다. 가령 金邕이 실제로 惠恭王을 죽였다면, 金良相과 金敬信은 자신들의 왕위 계승을 떳떳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金邕이 惠恭王을 죽였다는 下剋上의 사실을 다른 어떤 기록보다 歷史의 한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고,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에도 당연히 그러한 사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에서 金邕이 惠恭王을 죽였을 가능성은 아주 낮고, 도리어 金良相 등의 무리에 의해서 惠恭王과 王妃가 죽임을 당할 때 함께 殺害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⁹⁾

이번에는 각도를 조금 달리 해서 佛國寺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때부터 金大城이 죽을 때까지 朝廷의 實權을 쥐고 있던 中侍들의 이름과 그들의 在職 기간을 살펴보자.

金朝良(750. 1~754. 8)/金耆(755. 7~758. 1)/金廉相(758. 1~760. 4)/
金邕(760. 4~763. 8)/金良相(764. 1~768. 10)/金隱居(768. 10~770.
12)/金正門(770. 12~775. 3)/金順(775. 3~777. 10)/金周元(777. 10~
780)²⁰⁾

19) 성낙주는 자신의 著書『에밀레종의 비밀』, 푸른역사, 2008, 18~121쪽)에서 金邕을 惠恭王을 죽인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 주장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에밀레종 說話이다. 그러나 이 說話는 그 자신도 밝혔듯이 三國遺事 등 어느 史書에도 나오지 않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채록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천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채록된 에밀레종 說話를 결정적인 분석 자료로 삼는 것은 문제가 크다.

20) 李基白, 앞의 책, 1973, 157쪽 一覽表 내용 참조.

위의 내용으로 볼 때 751년 佛國寺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할 무렵 中侍는 金朝良, 771년 奉德寺神鐘이 만들어질 무렵 中侍는 金正門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金良相을 주목해 보자.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金大城이 죽던 해인 大歷 9년 12월 2일(775년 1월 12일) 무렵에는 당연히 中侍 자리를 그만 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그는 771년에 완성된 奉德寺神鐘에는 金邕에 이어서 그 이름을 두 번째로 올리고 있고, 三國史記의 기록에 보면 774년 9월에는 神獸에 이어서 上大等이 되었고, 777년(惠恭王 13년) 3월에는 時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고, 다시 2년 뒤에는 “漢化되어 있는 官職이름을 예전대로 복구시켜놓는 일을 했다.”²¹⁾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金大城의 죽음 時點이다. 즉 金良相이 大歷 9년 9월에 上大等이 되는 반면, 金大城은 그해 12월 2일에 죽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보면, 金大城이 金良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金良相이 上大等이 된 달과 金大城이 죽은 달은 겨우 3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및 佛國寺創建說話에서 金大城은 신기하게도(?) 두 번 죽는다- 鄉傳과 寺中記는 내용을 달리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일단은 金大城은 앞의 이야기에서 어린 시절에 죽고 뒤의 이야기에서 (커서) 절을 짓다가 죽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집안이 가난했던 金大城은 어미인 慶祖와 상의해서 來世의 편안한 삶을 기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부쳐 먹던 땅을 보시했다. 그런데 그런 어린 金大城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 어린 金大城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래서 의아스럽다. 그리고 갑자기 죽은 金大城은 뜻밖에도 金文亮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金大

21) 李基白, 앞의 책, 1973, 236쪽 참고.

城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金文亮의 집에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벌어진 일종의 ‘擬似的 죽음’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은 再生을 위한 죽음으로서 “새로운 천지창조를 위해서 과거의 천지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러한 죽음 후에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입사식”²²⁾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寺中記의 기록에서 佛國寺를 짓다가 12월 2일에 벌어진 金大城의 죽음 역시 金大城이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죽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어린 金大城의 擬似的 죽음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金良相이 大歷 9년 9월에 上大等이 되면서 政權의 핵심부로 떠오르는 일과 大相 金大城이 같은 해 12월 2일에 죽은 일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일은 죽은 金大城이 金文亮의 집에서 새로 태어나는 再生儀禮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神話 가운데 再生儀禮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일을 다룬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昔脫解神話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龍城國에서 버림받고 다시 가야 쪽에서도 쫓겨났다가 金靑쪽에 실려서 新羅에 도착한 昔脫解는 吐舍山에 올라서 돌무덤을 만들고 이레 동안 머물다가 城內로 내려와 瓠公의 집터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 뒤에 마침내 임금자리에 오른다. 여기서 昔脫解가 돌무덤에 들어가 이레 동안 머문 일 역시 擬似的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再生儀式이다. 따라서 金大城의 再生談 역시 단순한 再生談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그가 태어날 때까지 가지고 있던 金簡子를 통해 볼 때 金大城이 왕이 된 이야기로서 王權의 획득을 위한 과정 속에서 혹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金大城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三國遺事』에도 나와 있듯이 惠恭王 시절에 왕을

22) 신연우, 『우리 설화의 의미찾기』, 민속원, 2008, 196쪽 요약 인용.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金良相이라는 사실로 볼 때 金大城이라는 인물은 金良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寺中記에서 나오는 대로 景德王 때 大相 金大城이 天寶 10년 辛卯에 佛國寺를 짓기 시작했다가 惠恭王 때를 거쳐서 大歷 9년 甲寅 12월 2일에 大城이 죽자 나라에서 마저 완성했다는 것은 金大城이 임금자리에 오르게 됨으로써 佛國寺의 책임자 노릇—그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佛國寺創建說話 가운데 金大城이 石窟庵을 造成하던 중에 石窟庵의 뚜껑돌이 세 조각을 깨진 사연을 그린 이야기일 것이다—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즉 臣下가 짓던 절—佛國寺와 石窟庵의 규모로 볼 때도 臣下가 이 절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을 그 臣下가 죽자 나라에서 마저 완성했다는 (王朝國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의 내막은 이러한 맥락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惠恭王의 誕生과 石窟庵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 볼 때 佛國寺 등의 創建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佛國寺 등의 創建을 惠恭王의 탄생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일이다. 다음 이야기는 三國遺事의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의 일부이다.

(景德王은) 아들이 없어서 王妃를 폐하여 沙梁夫人이라고 했다. 后妃 滿月夫人의 諡號는 景垂太后로 依忠 角干의 딸이다. 왕이 어느 날 表訓大德에게 命을 내려 “짐이 복이 없어 後嗣를 얻지 못했으니, 大德은 上帝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시오.” 表訓이 곧 天帝에게 고하고 돌아와 “天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구한다면 되지만 아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왕이 “딸을 아들로 바꾸어 태어나게

해주기 바란다고 하시오.”라고 했다. 表訓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청하
자 天帝가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되면 나
라가 위태할 것이다.”라고 했다. 表訓이 곧 돌아오려 할 때 天帝가 다
시 불려서 경계하기를 “하늘과 사람의 사이는 어지럽게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이제 禪師가 이웃동네 드나들듯이 하여 天機를 누설하니 이
제부터 마땅히 서로 내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表訓이 돌아와
天帝의 말을 깨우쳐 주니, 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비록 어지럽더라도
아들을 두어 後嗣를 이으면 족할 것이다.”라고 했다.……겨우 여덟살
되던 해에 (敬德)왕이 죽고 太子가 卽位하니 그가 곧 惠恭大王이
다.……어린 임금은 원래 여자였다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돌 무
렵부터 임금자리에 오를 때까지 늘 婦女들의 놀이를 일삼아 비단주
머니 차기를 좋아했고 道流들과 함께 놀았다. 그래서 나라에 커다란
난리가 일어나고, 마침내 宣德과 金良相에게 죽임을 당했다.²³⁾ 表訓
이후로 新羅에서는 聖인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²⁴⁾

위의 내용은 한마디로 惠恭王이 여자로 태어날 팔자인테 남자로 태
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은 『三國史記』에는 실려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 인용한 『三國史記』(a,
b)와 『三國遺事』(c)의 또 다른 부분에는 惠恭王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기록하였다.

23) 金良相이 곧 뒤에 宣德王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一然의 착각이거나 간행과정에서
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4) 『三國遺事』,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 “王……無子廢之 封沙梁夫人 後妃滿月夫人
諡景垂太后 依忠角干之女也 王一日詔表訓大德曰 朕無祜 不獲其嗣 願大德請於上帝而
有之 訓上告於天帝 還來奏云 帝有言 求女即可 男卽不宜 王曰 願轉女成男 訓再上天請
之 帝曰 可則可矣 然 有男則國殆矣 訓欲下時 帝又召曰 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
漏洩天機 今後宜更不通 訓來以天語諭之 王曰 國雖殆 得男而爲嗣足矣 於是 滿月王后
生太子 王喜甚 至八歲王崩 太子卽位 是爲惠恭大王 幼冲故太后臨朝 政條不理 盜賊蜂
起 不遑備禦 訓師之說驗矣 小帝既女爲男故 自期啐至於登位 常爲婦女之戲 好佩錦囊
與道流爲戲 故國有大亂 遂爲宣德與金良相所弑 自表訓後 聖人不生於新羅云”

(a) 惠恭王이 王位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乾運으로 景德王의 嫡子이다. 어머니는 金氏 滿月夫人으로 舒弗邯 依忠의 딸이다. 왕이 卽位했을 때 나이가 8살이었으므로 太后가 攝政했다.²⁵⁾

(b) 王은 어려서 즉위했다. 나이가 들자 音樂과 女色에 빠져서 아무 때나 法度를 잃고 놀러 다니며 紀綱이 문란하여 災難과 異變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人心이 離反되고 社稷이 위태로웠다. 伊滄 志貞이 反亂을 일으키고 叛徒를 모아 대궐을 포위하여 침범하였다. …… 여름 4월, 上大等 金良相이 伊滄 敬信과 함께 군사를 동원하여 志貞 등을 죽였다. 王과 王妃는 이 난리 중에 軍士들에게 살해되었다. 良相 등이 王의 諡號를 惠恭王이라 했다.²⁶⁾

(c) 어린 임금은 원래 여자였다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돌 무렵부터 임금자리에 오를 때까지 늘 婦女들의 놀이를 일삼아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했고 道流들과 더불어 놀았다. 그래서 나라에 커다란 난리가 일어나고, 마침내 宣德과 金良相에게 죽임을 당했다.²⁷⁾ 表訓 이후로 新羅에서는 聖인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²⁸⁾

三國史記에서 惠恭王이 나이가 들면서 女色에 빠졌다는 것은 三國遺事에 나오는 惠恭王의 여성적 행동과 一脈相通한다. 그러나 惠恭王이 女色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맥락은 惠恭王 때 臣下들에 의해서 叛亂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견주어서 이해해야지 일방

25)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九』, “惠恭王立 諱乾運 景德王之嫡子 母金氏滿月夫人 舒弗邯 義忠之女 王卽位時年八歲 太后攝政”

26)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九』, “十六年 王幼少卽位 及壯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杌隳 伊滄志貞叛 聚衆 圍犯宮闕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伊滄敬信 舉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良相等諡王爲惠恭王”

27) 金良相이 곧 뒤에 宣德王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一然의 착각이거나 간행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8) 『三國遺事』,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 “小帝旣女爲男故 自期啐至於登位 常爲婦女之戲 好佩錦囊 與道流爲戲 故國有大亂 修爲宣德與金良相所弑 自表訓後 聖人丕生於新羅云”

적으로 惠恭王의 개인적인 행위로만 놓고 보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惠恭王이 女色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동양의 歷史書에서 쫓겨난 왕 등에게 항용 붙이는 修飾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惠恭王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고 太后가 攝政한 경우라면, 惠恭王의 君主로서의 행동은 그 자신보다는 指鹿爲馬의 權力을 휘둘렀을 臣下들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정상일 것이고, 惠恭王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 역시 이러한 비정상적인 權力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惠恭王의 誕生談 역시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방금 인용한 惠恭王의 誕生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表訓은 金大城이 세웠다는 石窟庵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佛國寺創建說話는 祈子說話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佛國寺(石窟庵 포함) 創建過程을 惠恭王의 탄생과 관련하여 설명한 南天祐와 申榮勳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²⁹⁾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의 글은 說話 분석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보편적인 祈子說話의 패턴 속에서 펼쳐내지는 못했다.

대개 祈子說話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檀君神話와 金蛙誕生神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神話を 직접적으로 惠恭王의 탄생에 관련된 해석의 실마리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 神話들은 佛敎 傳來 이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佛敎와 祈子說話가 접합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解扶婁가 金蛙를 얻는 과정에서 굴린 '돌'은 祈子說話에 자주 나오는 돌이나 바위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佛敎와 연관된 祈子說話를 찾아보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듯하다. 현재 경기도 광탄면 용미리에 가면 高麗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龍尾里石佛(보물 93호)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29) 남천우, 앞의 책, 1991, 182~196쪽; 신영훈, 앞의 책, 2003, 52~57쪽.

高麗 宣宗이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後宮인 元信宮主가 어느 날 밤 꿈에 두 道僧이 나타나 “우리는 長芝山 남쪽 기슭에 사는 사람들인데 매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꿈에서 깬 宮主가 이상해서 왕께 고하자 왕은 곧 사람을 長芝山에 보내서 알아보니 長芝山 아래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왕은 이 바위에 두 道僧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지어 佛供을 드렸는데 그 해에 王子 漢山候가 탄생하였다.³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元信宮主와 道僧, 石佛(원래는 바위)이 祈子의 일과 연결되면서 王子인 漢山候를 얻는 과정이다. 이 祈子說話를 좀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역시 道僧이 등장하는 長者뭇 傳說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자.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도승은 천신적 존재이고 장자는 지신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누구인가? 주몽신화로 비견해 본다면, 도승을 해모수와 같은 천신적 존재로 볼 때, 장자는 하백에 해당된다. 며느리는 유화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유화는 아버지인 하백과 함께 지신적 성격을 나누어 갖는 위에 곡모신적 성격을 더하고 있다. 하백과 유화는 같은 성격의 신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며느리는 장자와 함께 살며 지신적 성격을 나누어 갖는 존재였다.³¹⁾

위의 주장은 長子뭇 傳說의 신화적 바탕을 천착한 연구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長者뭇 傳說을 주로 懲治談으로만 보던 기존의 연구 결과를 넘어서는 매우 진전된 논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덕분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두 명의 道僧과 元信宮主의 관계를 長者뭇 傳說에 나오는 道僧과 며느리의 관계나 주몽신화에 나오는 해모수와

30) 龍尾里石佛 안내판 정리 인용.

31) 신연우, 앞의 책, 2008, 186~187쪽.

柳花의 관계 속에서 조망할 수 있다.³²⁾

그러나 문제는 元信宮主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 長芝山에 있는 바위를 찾아가서 그 바위를 道僧의 형상으로 깎아 놓고 그곳에 절을 지어 致誠을 드려서 아들 漢山侯가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곳에 祈子에 관련된 바위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致誠을 드린 뒤에 漢山侯를 얻게 되자 절을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바위를 찾아가서 致誠하여 아들을 얻은 뒤에 그 결과로 절이 세워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절에 가서 致誠을 올려서 자식을 기원하는 풍습은 앞서 언급했듯이 돌 아래에서 아들은 얻는 金蛙誕生神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表訓이라는 僧侶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惠恭王의 誕生談은 金蛙誕生神話와 漢山侯 誕生談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이야기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惠恭王의 탄생과 石窟庵의 관계를 추정해낼 수 있다.

惠恭王의 誕生談을 보면 景德王은 자신의 治世 동안에 忠談師와 表訓이라는 두 명의 僧侶를 만났는데, 이 가운데 表訓을 통해서 惠恭王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惠恭王의 誕生談에는 表訓은 등장하나 그가 어느 절의 僧侶인지는 나오지 않고, 佛國寺創建說話에는 金大城이 表訓으로 하여금 石窟庵에 살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表訓이 “惠恭王의 誕生談

32)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모수는 해의 神이고 柳花는 달의 神으로 추정한다(서대석, 『동북아시아 신화 속에서 본 한국신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154~158쪽). 필자는 古代天文學의 방법으로 해모수와 柳花의 행동에서 해와 달의 움직임의 흔적을 찾아서 이들이 각각 해의 神과 달의 神임을 밝힌 적이 있다(田寬秀, 『朱蒙神話의 古代天文學의 研究 - 解蒙漱 이야기를 중심으로』, 『東方學』 1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이렇게 볼 때 佛教가 새로 들어오면서 해모수와 柳花의 관계가 道僧과 며느리의 관계로 변형되었을 것(물론 그 연대는 현재로는 쉽게 추정하기 어렵다)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長者 못 傳說에 대하여 共時的 연구를 넘어서 通時的 연구까지 필요한 일이고 本稿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과 石窟庵에 모두 등장하는 것”은 바로 道僧과 바위를 매개로 아이를 얻게 되는 漢山候 誕生談처럼 惠恭王의 탄생과 石窟庵 사이에 表訓이 개입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한다(漢山候 誕生談의 예를 가지고 볼 때 表訓이 惠恭王 탄생을 빌던 곳에 祈子에 관련된 바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表訓이 景德王으로부터 아들 얻는 일을 부탁 받았을 때 아들을 기원하는 對象은 天神, 上帝, 天帝의 형태 등으로 나온다. 이들은 그 이름으로 보나 祈子の 소망을 이루어 주는 對象으로 숭배되는 것으로 보나 佛敎의 神이 아니라 佛敎 이전에 주몽신화 등에서 나오는 天帝 등과 동일한 神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가장 구체적인 예는 바로 자식을 天神의 도움으로 얻게 되는 이야기인 金蛙誕生神話이다).

결국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表訓은 원래 元曉처럼 기존의 信仰體系에 충실하던 僧侶였다가 景德王이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자, 景德王은 表訓이 天神 혹은 天帝 등을 모시는 곳에다가 祈子를 위해서 혹은 祈子の 효험을 기념하기 위하여 石窟庵을 세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歷史는 惠恭王이 金良相(金大城)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고 惠恭王의 탄생을 위하여 石窟庵을 造成하던 金大城(金良相)이 왕이 되는 쪽으로 나아갔다. 더구나 당시는 惠恭王을 중심으로 하는 武烈王系에서 宣德王과 元聖王을 중심으로 하는 奈勿王系로 歷史의 主導權이 바뀌는 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佛國寺創建說話에서는 表訓과 관련된 惠恭王의 誕生談은 빠져 나간 채 表訓을 石佛寺에 모셔다 두었다는 말만 남게 되었으며,³³⁾ 惠恭王의 誕生談에서는 表

33) 이러한 과정에서 惠恭王의 誕生과 佛國寺의 創建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해서 끼어든 것이 金大城이 前生の 부모와 現生の 부모를 위해서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즉 金良相은 宣德王으로 卽位한 뒤에 惠恭王 때 처음으로 中國으로부터 도입된 五廟制에 새로 손을 댄 사람이다. 그리고 원래 惠恭王은 始祖(味鄒王), 太宗武烈王, 文武王, 聖德王, 景德王 등을 五廟에 모셨다(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 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 有大功德 並爲世世不毀之宗 兼親廟二爲

訓이 머물면서 惠恭王을 얻기 위해 기도했을 절에 대한 언급은 빠져나간 채 그냥 惠恭王을 얻기 위해 天帝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惠恭王의 誕生과정은 惠恭王의 誕生談과 佛國寺創建說話를 합쳐서 보아야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佛國寺創建說話는 佛國寺나 石窟庵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 가려져 제대로 해명된 적이 없었고, 說話의 다층적 성격에 크게 주목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찍이 金大城을 金大正이라는 인물로 比定된 뒤로 佛國寺創建說話에 대한 관심은 주로 金大城에게만 집중되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다.

五廟(『三國史記』卷第三十二 雜志第一 祭祀·樂). 宣德王은 임금이 되자, 聖德王까지는 그대로 두고 景德王 대신 자신의 아버지인 孝方을 開聖大王으로 追尊하여 五廟에 모셨다(元聖王立……:毀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三國史記』, 新羅本紀第十 元聖王). 후자는 金良相, 즉 宣德王이 直系祖上 2대를 모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아버지 대신 聖德王을 그대로 五廟에 모심으로써 그가 反武烈王系의 路線을 걷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한다(성낙주, 같은 책, 105쪽). 그러나 宣德王이 왜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追尊하여 五廟에 모시지 않고 聖德王을 그대로 모셨는지는 분명하다. 즉 宣德王의 어머니는 聖德王의 딸인 四昭(召)夫人이었다. 金良相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聖德王인 것이다. 宣德王이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五廟에 모시지 않은 이유는 모실 수 있는데 안 모신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는 왕이었지만, 친할아버지는 王系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런 점에서 牟梁里 출신의 金大城이 고귀한 金文亮의 집안으로 養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新羅의 骨品制 아래서는 親외의 구별보다 骨品이 더 중요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惠恭王 때 中國으로부터 도입된 낯선 五廟制를 시행할 때 五廟에 合祀하는 祖上들을 일부 바꾸는 과정이 前生과 現生の 두 부모를 모두 섬기는 이야기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佛國寺와 石窟庵이 佛敎的 건축물이다 보니, 佛國寺創建說話에 나오는 金大城의 보시 행위와 再生 문제는 대체로 佛敎的 신앙의 관점에서만 부각되었다. 그러나 佛國寺創建說話는 佛敎的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점들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佛國寺創建說話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古代說話나 口碑說話에 나오는 話素들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변형하여 수용한 흔적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관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이러한 시각들 때문에 佛國寺創建說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佛國寺創建說話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佛國寺創建說話가 우리의 古代說話나 口碑說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話素가 수용되고 변형되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의 古代說話를 해명함에 있어서 여러 古代說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話素를 찾거나 이를 類型化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佛國寺創建說話가 다른 說話 속에 있는 話素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그 類型化 작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칫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說話는 고정된 창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民衆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說話에서 話素는 이야기를 時空間的으로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本稿의 연구 결과 역시 우리 古代說話의 類型化 작업이 활발하게 진척됨으로써 좀더 세밀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姜友邦, 「佛國寺와 石佛寺의 功德主」, 『美術資料』 66, 國立中央博物館, 2001.
-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8, 1997.
-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의 研究」, 『佛敎研究』 2, 한국불교연구원, 1986.
- 金煥泰, 「彌勒寺創建緣起說話考」, 『馬韓百濟文化』 1, 1975.
- 南天祐, 『石佛寺』, 一潮閣, 1991.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吐舍山石窟庵의 再照明』,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4.
- 朴南守, 「金大城의 佛國寺 造營과 그 經濟的 背景」,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8, 新羅文化宣揚會, 1997.
- 裴敬洙, 「吐舍山 石窟庵에 대한 小考」,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서대석, 「동북아시아 신화 속에서 본 한국신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를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 성낙주,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개마고원, 1999.
- _____, 『에밀레종의 비밀』, 푸른역사, 2008.
- 신연우, 『우리 설화의 의미찾기』, 민속원, 2008.
- 신영훈, 『석불사, 불국사』, 조선일보사, 1998.
- 尹張燮·尹在信, 『석불사: 건축공간과 불상조각』, 1998.
- 李 萬,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8, 1997.
- 이희춘, 『石窟庵』, 중문출판사, 2001.
- 田寬秀, 「朱蒙神話의 古代天文學의 研究 - 해모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東方學』 15, 한서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 _____, 「麒麟窟神話 研究」, 『東方學志』 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 韓國精神文化研究所, 『石窟庵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人文科學研究部, 1991.
- 韓國文化財管理局,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韓國文化財管理局, 1967.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佛國寺誌』, 서울亞細亞文化史, 1983.
황수영, 『석굴암의 창건과 연혁』, 『역사교육』 8, 1964.
_____,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黃五根, 『佛國寺와 石窟庵』, 한국출판사, 1957.

투고일: 2010. 7. 1 심사일: 2010. 8. 14 게재확정일: 2010. 8. 28

<Abstract>

A Study of the Legend of the Bulguksa Temple Establishment

Jeon, Kwan Su*

Even though we may have studies on Bulguksa by the hundreds, there is not nearly the same number of studies on the legend of Bulguksa. Based on those studies, we have concluded the following.

First, when the King Hyegong was enthroned, Kim Dae Seong was established as the founder of Bulguksa, but the last name of Dae Seong (the great castle) has been proved not to be a real name but a false name derived from the name of the town, Daeseong.

Second, it has been proved that the rebirth story of Kim Dae Seong originated from the birth story of Jukjirang, where the soul of an ascetic that Jukjirang's father, Suljong-gong, met on the Jukjiryong Hill entered Jukjirang's mother, who then displayed signs of pregnancy and eventually gave birth to Jukjirang, and the rebirth myth of Seoktalhae, who entered a tomb on the mountain Tohamsan and became a King afterwards.

Third, the story where Daeseong hunted a bear on the Toham and had a dream where he met the bear that night is concluded to be a compound story fusing the bear dream story as a birth symptom of a baby boy with the actual story that he murdered a man as the

* Visiting Researcher of Korean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by boy.

Fourth, when we consider the statements above, Kim Dae Seong proves that Kim Yang Sang murdered King Hyeogong and came to the throne as the King Seondeok (?~785) afterwards.

Fifth, it is concluded that the legends of Bulguksa and Seokgulam were constructed to explain the birth of a baby boy, the King Hyeogong (758~780).

Key Words: Bulguksa, Seokgulam, Kim Dae Seong, Rebirth Story, Bear Dream Story, King Hyeogong, Pyohun Monk